대전엑스포 '93(7)

1. 역사적인 개막—대전엑스포 '93

1993년 8월 7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 마침내 대전엑스포 '93이 온 인류 앞에 그 신비로운 모습을 드러냈다.

대전직할시 유성구 도룡동 27만 3천여평의 대지 위에서 펼쳐지는 우리의 미래를 위한 과학기술의 대축제, 인류의 땀과 슬기와 꿈이 21세기의 이상적인 문명사회 창조를 준비하는 역사적인 현장이 이념과 인종과 국가를 초월하여 모든 이들 앞에 선을 보이는 것이다.

박람회장 중앙에 자리잡은 높이 93미터의 대전엑스포 상징탑인 '한빛탑'이 내려다 보는 가운데, 주제관인 '정부관'을 비롯한 27개의 국내 전시관과 100여개의 국가와 20여개의 국제기구가 참가한 세 지역의 국제관. 그리고 대공연장, 엑스포극장, 놀이 마당 등의 각종 문화예술 행사장, 엑스포의 개막을 알리는 엑스포대종, 어린이들의 천국인 '꿈돌이 동산'의 바이킹, 공포특급 등 온갖 시설물들이 한데 어우러져 관람객들로 하여금 환상의 나라로 초대받은 듯한 착각을 느끼게 한다.

엑스포 회장은 곳곳에 들어찬 각종 건물들의 겉모양부터가 첨단적이고 예술적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건축 박람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를 들면 '자연생명관'은 세포 모양을 상징하는 6각형 건물이며 '인간과 과학관'은 태양빛에 따라 노란색, 흰색, 회색 등으로 빛깔이 변한다. '우주탐험관'은 가상의 달 기지를 형상화했고 '지구관'은 뾰족뾰족한 유리성 모양이며 '재생조형관'은 5만개의 빈 병으로 만들어진 원뿔형이다.

그뿐인가. '정부관'을 비롯한 몇 개의 전시관은 건물 안에 기둥이 하나도 없는 '무주공법'을 쓰는 등 건물 안팎이 첨단기술을 총동원한 것이다.

갑천 호수에서는 '태양전지거북선'이 떠다니고, 상설전시구역쪽에서는 '자기부상열차'가 선로 위에 떠서 달리며, '전기자동차'와 '태양전기자동차'가 회장 안을 달리고 있다.

회장 곳곳에서 축제 행렬, 거리의 볼거리 등 거리 공연이 펼쳐지고 시카고 엑스포 참가 전시품 특별전, 비디오 아트쇼, 리사이클링 특별 미전 등 수많은 전시, 그리고 그랜드 쇼, 세계의 북잔치 등 온갖 실내 공연도 함께 펼쳐진다.

각종 전시관에서는 식인종의 생활 모습에서부터 우주정거장까지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21세기의 미래 생활과 환경보존과 자원고갈에 대한 해결 방안 등 다채롭고 신선한 전시물과 영상물들이 모여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눈을 뜨게 해 준다.

'세계를 한 곳에 미래를 한 눈에'—대전엑스포 '93이 여러분의 발길을 재촉한다.

2. 대전엑스포 운영 시스템

관람객들은 8월 7일부터 9월 15일까지는 오전 9시 30분부터 밤 10시까지 박람회장을 돌아볼 수 있다. 그 이후 9월 16일부터 11월 7일까지 오전 9시 30분부터 밤 8시까지 관람할 수가 있다.

장장 93일 동안 계속되는 대전엑스포에서는 관람객의 편의를 돕기 위해 첨단기술을 활용한 종합정보안내시스템을 마련했다. '꿈돌이 안내소'가 바로 그것이다.

박람회장 안에 11개소, 회장 밖에 3개소가 있다.

2인 1조로 된 6개소의 순회 안내팀도 운영된다.

이밖에 정보 워크 스테이션 24개소가 있다. 이 종합정보서비스 시스템은 모두 터치 스크린 방식으로 조작되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원하는 것을 짚으면 컴퓨터에 의해 자동적으로 안내를 받게 된다.

주요 전시 내용과 프로그램, 그리고 각종 문화행사의 내용과 일정이 모두 들어 있다. 관람객들은 자신의 일정을 감안해서 관심있는 전시관과 문화행사를 골라서 볼 수 있으므로 여러 모로 편리하다.

'관광 안내'에는 주변 관광지와 연구소에 대한 정보도 수록돼 있다.

'혼잡도 측정 시스템'도 마련돼 있어서 박람회장 주변 도로와 주차장, 광장 등의 혼잡도를 파악할 수가 있다.

또한 '꿈돌이 컴퓨터 게임'은 엑스포 관련 사항을 알아맞추는 게임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관람안내전문가' 코너에 나이와 관심 분야 등을 입력시키면 박람회장 안의 모든 정보를 분석해서 회장 전체의 조감도와 관람객의 위치를 보여주고 관람할 전시관의 순서를 알려준다. 이 정보를 복사해 주는 기능도 갖추고 있다.

이밖에도 온갖 정보가 다 들어 있다.

조직위에서는 '꿈돌이 카드'를 마련했다. 선불카드는 3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1만5천원권, 2만원권 등이 있는데, 이 카드로 각종 매장, 식당, 자동판매기, 꿈돌이 동산의 유희시설, 주차장 등을 이용하게 되고 남는 금액은 정산소에서 되돌려 받는다.

박람회장에서는 조직위 직원, 도우미, 자원봉사자 등이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 친절한 안내를 해 줄 것이므로 관람에 따른 불편은 거의 없게 될 것이다.

3. 교통 종합 안내

8월 7일부터 11월 7일까지 93일간 열리는 대전엑스포에는 모두 1천만명 정도의 관람객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하루 평균 10만 8천명이 엑스포 회장을 찾을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주말 등 혼잡일에는 20만명 가량의 관람객이 예상된다. 개막일 등 최고 혼잡일에는 하루에 30만명까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짜증나는 교통혼잡을 피해 여유있게 엑스포 회장을 둘러보는 방법을 나름대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우선 철도를 이용하면 교통체증을 피할 수 있다. 엑스포 기간중 총 관람객을 26%인 약 2백 65만명이 철도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엑스포역이 개설되며 엑스포 전용 특별열차도 운행된다. 열차를 이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매·승차권 예매는 박람회 개최 3개월 전부터 박람회 종료 전날까지 실시된다. 철도 회원 가입자는 자동전화예약(ARS)을 할 수 있다.

역시 개최기간중 운행될 엑스포 셔틀버스를 이용하면 출발지에서 회장까지 곧바로 연결돼 중간에 다른 교통수단으로 갈아타는 번거로움이 없어 편리하다.

교통부와 전세버스연합회는 2백26대의 셔틀버스를 3백70회 운행할 계획이다. 하루에 엑스포 셔틀버스로 수송할 수 있는 인원은 줄잡아 1만4천8백여명. 엑스포 셔틀버스는 수도권에 1백30대, 영남권에 20대, 호남권에 4백9대, 충청권에 36대가 마련된다.

엑스포 셔틀버스와 함께 전세버스도 관람객 수송에 한몫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학생이나 지역주민들의 단체관광에 주로 이용될 전세버스는 총 관람객의 18.3%인 약 1백83만명을 엑스포 기간중 수송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속버스도 열차 다음으로 일반인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이다. 고속버스를 이용할 때 편리한 점은 운행횟수가 잦다는 것이다. 추석 등 특별한 기간과 주말 등 혼잡일을 피하면 쉽게 승차권을 구할 수 있다.

승용차를 이용해 박람회장을 찾는 사람도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주말이나 휴일을 이용해 하루 일정으로 엑스포 관람에 나선다면 승용차 이용은 피하는 것이 좋다.

승용차를 이용하려면 교통방송(엑스포 FM 방송) 등 방송매체를 주의 깊게 들을 필요가 있다. 엑스포 기간중 교통방송은 엑스포로 가는 길에 대한 자세한 안내방송을 해 줄 계획이다.

엑스포 기간중 VIP와 관람객의 특별수송을 위해 헬기도 동원된다. 이를 위해 잠실 헬리포트와 대전 헬리포트를 잇는 새로운 항로가 개설되었다. 잠실에서 헬기를 이용하면 박람회장 부근의 대전 헬리포트까지 40분만에 도착할 수 있다. 잠실에서 대전까지의 헬기 이용 요금은 편도 5만5천원이다.

대전엑스포의 예상 관람객 수는 1천만명. 이 가운데 약 7백35만명이 고속도로, 국도 등 공로를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고속도로의 경우 개막일 등 최대 혼잡일 피크시간(오전 7시~8시)에 수도권에서 출발할 경우 한남~판교 구간, 판교~수원 구간, 하일~곤지암 구간, 남이~청원 구간에서 도로 용량을 초과한 교통혼잡이 예상된다.

최대 혼잡일이 아니더라도 혼잡일, 즉 주말이나 연휴 등에도 판교~수원 구간에서 도로 용량을 초과한 교통량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 확장 공사가 이루어져 엑스포 기간중에는 시원하게 뚫린 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을 것이다. 양재~수원 4차선 구간은 지난해 7월 8차선으로 확장되었다. 수원~천안 구간도 4차선 도로가 8차선으로 확장되며, 천안~남이 구간은 4차선에서 6차선으로, 남이~청원 구간은 6차선에서 8차선으로 넓어진다.

기존의 인터체인지도 확충된다. 청원, 신탄진, 회덕, 대전, 유성 인터체인지가 확충되며 북대전 인터체인지, 즉 엑스포 인터체인지가 신설된다.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는 관람객의 원활한 수송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엑스포로 가는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니다. 전국민 전세계인이 같이 이용하는 길이다. 손님에게 길을 터주고 자신은 한발짝 뒤로 물러서는 한국인의 미덕이 엑스포 가는 길에서도 발휘되어야 하겠다.

4. 숙박 종합 안내

충분히 엑스포의 진수를 맛보려면 엑스포가 열리는 3개월 동안 한번쯤은 가족들과 함께 '엑스포의 휴가'를 가져 보는 것이 좋다.

엑스포를 제대로 즐기려면 대전에서 적어도 2박3일은 둘러보아야 한다. 27만3천평의 넓은 회장, 29개 전시관에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다 보면 하루만에 전시관을 둘러보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숙박이다. 대전 부근의 호텔 및 여관은 현재 관람객들의 예약문의가 활발해 엑스포가 가까워질수록 치열한 방 잡기가 예상된다.

엑스포 관람객 수가 1천만명으로 예상할 때 하루 평균 예상 관람객은 15만명 가량이 될 것이다. 이중 3%가 숙박을 할 경우 약 4만5천명이 대전에 머무른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중에서 또 친척집 등 연고 숙박(22% 예상)을 제외하면 숙박업소 이용객은 전체의 78%인 약 3만5천명이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이 그다지 몰리지 않는 평일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만일 30만명이 박람회장을 찾을 경우 숙박

예상 인원은 9만여명이며, 숙박업소 이용객은 7만여명이다.

이러한 숙박수요를 고려할 때 현재 대전 인근의 숙박시설로는 부족한 현실이며, 혼잡일에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조직위와 대전시는 엑스포 기간중 객실 부족에 대한 대책으로 관람객 분산, 대체 숙박시설 활용 등을 유도하고 있다. 주로 풍족한 숙박시설을 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부족분 만큼 엑스포 개최전까지 대전 및 인근지역에 숙박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한다는 것이다.

또한 숙박난 해소를 위해 민박가정 6백가구를 선정했고, 운영요원 숙소인 엑스포타운 아파트 4천가구중 1천가구를 일반 관람객을 위해 예약 접수하고 있다.

엑스포 관람객이 이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들을 종합해 보면 호텔, 여관, 민박, 엑스포타운 아파트, 야영장 등이 있다. 조직위와 대전시는 캠핑과 함께 엑스포 관람을 원하는 젊은이들을 위해 대전 및 인근지역에 8천4백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10개의 야영장을 마련했다. 대표적인 야영시설은 한국오토캠핑연맹이 박람회장 도보 5분 거리에 마련한 엑스포 드림캠프로, 하루에 4천여명을 수용할 수 있다. 이밖에 적십자 청소년 수련장, 보문산 레포츠 공원, 자연휴양림 등이 있다.

조직위와 대전시는 7월 1일부터 11개의 숙박안내 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엑스포타운내에 1개가 있고 대전에 6개, 서울에 4개가 있다.

서울의 숙박정보 안내센터는 서울역(319-8406), 한국관광공사(319-8446), 김포공항 국제선 2청사(663-6055), 김포공항 국제선 1청사(664-2716) 등에 마련돼 있고, 대전의 안내센터는 대전역(221-3228), 서대전역(534-1367), 고속터미널(533-8907), 서부터미널(523-9937), 유성안내소(822-7462), 박람회장(동문·서문·남문·조직위 상황실 863-1016~19), 엑스포타운(863- 1001~15) 등에 있다.

숙박을 원한다면 각종 정보를 갖추고 있는 안내센터를 통해 숙소에 관한 안내를 받은 뒤 직접 예약을 하면 된다. 조직위는 늦어도 숙박 예정일의 1개월전에는 예약을 해야 숙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5. 엑스포 '93 관람 정보

하루 평균 10만에서 20만명까지 운집

대전엑스포는 93일 동안 총 1천만명이 관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엑스포 회장은 27만3천여평의 크기이지만 평일에는 하루 평균 10만여명,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20여만명이 입장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기 때문에 매우 혼잡할 것이다.

관람을 위한 준비

엑스포 관람을 위하여 사전에 관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도착해서 식사, 관람 순서, 숙박 여부 등을 미리 판단하여 필요시 예매를 한다.

버스를 이용할 경우는 주요 도시에서 운행하는 엑스포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엑스포 셔틀버스는 엑스포 회장까지 직접 들어간다.

자가용을 이용하려면 평일에 오는 것이 좋다. 평일에는 주차요금을 할인해 주는 이점이 있고(휴일 8,000원, 평일 5,000원) 교통도 원활할 것이다. 오후 4~5시경이 되면 박람회장을 빠져 나가는 차가 대단히 많아서 교통체증이 예상되므로 야간까지 관람한다든지 숙박을 하고 나서 아침 일찍 떠나는 것이 좋다. 엑스포 회장 부근 및 고속도로에서는 교통방송 및 엑스포 FM방송을 들으면서 교통혼잡 여부와 우회도로에 대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다.〈♣〉

審判便覽

국판(25절), 642면,

특허청편, ₩11,000